


### 공동체 소식



#### 예수부활대축일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 경축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부활

####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지 육신의 부활만이 아니라,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이며, 믿는 모든 이들의 희망입니다.

#### ‘성주간 전례’와 ‘부활 대축일’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주일학교 방학

- 안내 : 봄학기 주일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방학을 시작합니다.

#### 부활대축일 애찬 봉사는 행사 1조 담당입니다.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 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오오, 주님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제는 살아야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수난의 마지막 저녁처럼

부활의 첫 새벽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죽어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해 주십시오...

- 이해인 수녀 ‘부활절의 기도’ 中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건
130	129	165	134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김정원 안젤라 차민서 임마누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 주	정예진 한나 문예나 요안나	이원준 요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 주	김명은 안젤라	박희영 카타리나 최선운 마리아

#### 애찬 봉사자

금 주	행사 1조
차 주	백문주, 최은미, 윤지선

#### 헌금 봉사자

금 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차 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4/9일	65명	247달러	1,440달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2차헌금-103달러			
김태중, 감영진, 한봉경, 김진미, 차호섭(총 5세대)			

예수 부활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4월 16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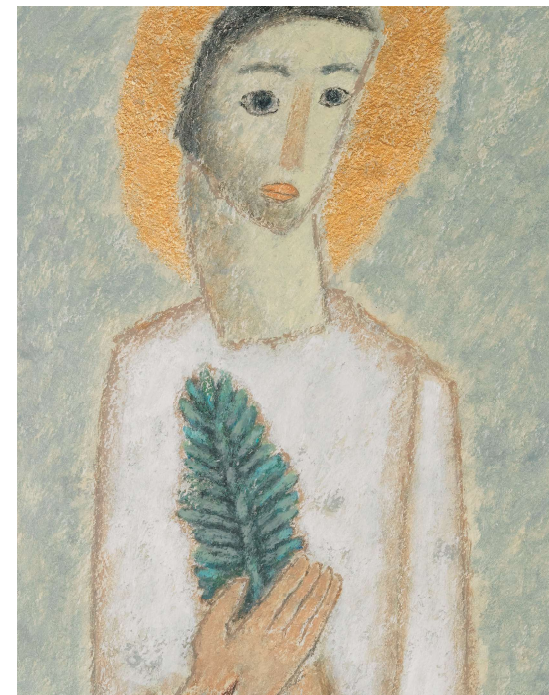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 오늘의 전례

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기쁨을 전하며,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합시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그림 묵상

#### 승리하신 그리스도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요한 20,1)**

우리를 위해 수난하고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아침 성무일도는 그기쁨을 이룰게 노래합니다. “무덤에 갇혀있던 우리 임금님 군사가 엄중하게 지키었던만 장엄한 광채속에 개선하시어 죽음의 승리자로 부활하셨네.”

김옥순 수녀 | 성바로로딸수도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37-43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화 답 송 :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4<또는 1코린 5,6-8>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 <또는 마태 28,1-10>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 예수님 부활 증인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은 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사도 10,39에서 베드로가 증언하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날입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도들의 부활 증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부활 신앙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어가는 이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 부활과 관련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숨기고서 부활했다고 떠든다는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들은 이구동성으로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 증인이었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인 100명이 증언해도 공적인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은 여인들이 부활을 처음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숨긴 뒤 속이려 했다면,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남자들, 곧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이 보았다고 증언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여인들이 빈 무덤을 처음 보았다고 증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 증언에 약점이 될 만한 요소였지만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 증인이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후 여러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다 나타나신 것

은 아닙니다. 사도 10,41에서 베드로가 증언하듯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증인으로 미리 선택하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과연 그들의 증언은 참된 증언일까요?

제자들의 증언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겁에 질렸던 이들이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엑스자형 십자가형에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과연 거짓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피로 증언한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무엇인가를 보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숨을 걸고 증언한 이들의 증언 앞에서 있습니다. 이제 선택과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부활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강렬한 부활 체험은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강하게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활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활은 여전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재입니다.

부활 대축일을 맞아 우리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활을 믿으며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영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미사 때 촛불을 켜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창세 1,3) 예로부터 성스러운 곳이나 성스러운 예식을 거행하는 데 빛이나 불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주님 성전에는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 앞쪽을 비추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라.”(탈출 25,37)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요한 8,12)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마태 5,14)이 되라고 당부 하였습니다. 촛불은 온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루카 2,32)

또한 초는 십자가상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초가 스스로 태워 빛을 주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활성야에 밝히는 부활초는 전례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뜻하는 최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성상 앞에 촛불을 켜 놓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덕을 상징하며, 전구를 청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 앞에 켜 놓는 것은 그들이 곧 주님을 뵈올 수 있기를 기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성사나 첫영성체 예식 때, 수도서원이나 성품 성사(聖品聖事) 때에 후보자들이 촛불을 받아들이거나 촛불을 들고 입장하는 것은, 촛불이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히듯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이웃을 위해 태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사 때 촛불을 켜는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하심,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함

께하심을 나타냅니다. 미사 때 제대 위에 켜는 초 개수는 그날 전례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평일이나 기념일에는 2개의 초를 켜니다. 그러나 주일이나 축일에는 4개의 초를 켜니다. 또 대축일에는 6개의 초를 켜니다. 교구장이 주례를 하는 경우에 한해 교구장 초를 밝힙니다. 일반적으로 교구장이 본당에 방문하실 경우에는 대축일 미사나 특별한 미사(1등급)를 집전하시기 때문에 초를 7개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례력(등급)에 맞게 초를 밝히고 교구장 초(+1)를 사용하면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탈출 13,21)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기적

소중한 이가 사라졌습니다. 사랑한 이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슬프지 않습니다.

소중한 이가 사라짐이 사랑하는 이가 떠남이

희망이 되어주는 신기한 기적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한 20,9)

- 임의준 신부